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36 호

2020년 10월 1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회원사 전용 온라인 월간 매거진 Monthly Insights 런칭
2.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 결과 공유 (9/24)
3.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 공유 (9/25)
4. [TGE 참여사] 『TGE 엠베서더 포럼』 개최 안내 (10/13)
5. [회원사]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안내 (10/16)

#### ■ 본부 소식

1. 1,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 유엔 75주년을 맞아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 표명
2. 250개 이상의 기업, 여성 리더십과 성평등 향상을 위한 행동에 나서다

####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부산경제진흥원
2. [SDGs 솔루션] 순환경제 속 잔여 건설자재 활용

## ■ UNGC 회원 뉴스

1. SK 하이닉스·GS 칼텍스 등 9 곳, UNGC ‘다자주의 지지’ 참여
2. 동아쏘시오홀딩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됐다
3. GS 칼텍스-한국전력, 기업형 전기차 충전 모델 개발
4. 미래에셋대우, ESG 투자상품 늘리고…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
5. 남부발전,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뉴딜에 4 조원 투자
6. 제주개발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7. 두산중,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환골탈태’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회원사 전용 온라인 월간 매거진 Monthly Insights 런칭



# Monthly Ins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월간 매거진 ‘Monthly Insights’를 10월 7일 런칭합니다. 본 매거진은 회원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발송되며,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행사(포럼, 워크숍, 웨비나 등) 결과
- 국내/국외 CSR,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트렌드
- 본부 발간물/기사/보고서 (국문번역 및 요약)
- 이슈별 전문가/연구기관 인사이트 분석
- UNGC 프로젝트 동향: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젠더이퀄리티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

이 외에도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 실무진에게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매월 선별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Monthly Insights에서 특별히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Ti4YoAcGk4yVQ4pU9>

\*기존 뉴스레터는 공지사항 전달 및 행사 안내 등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기존과 같이 매월 1일, 15일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는 각 회원사 내 UNGC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는 회원전용 뉴스레터입니다. 자사 내 매거진 구독을 원하시는 다른 실무진이 계실 경우, UNGC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유진 연구원([ykong@globalcompact.kr](mailto:ykong@globalcompact.kr)/02-749-2149)

## 2.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 결과 공유 (9/24)

\*참석기관(가나다 순): 동아쏘시오홀딩스, (주)두산, 두산중공업, 법무법인 지평,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금융지주,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KB 국민은행, KT, SK 가스,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2020 년도 ESG 실무그룹 Co-chai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KB 국민은행 장도성 수석차장, (주)두산 신연빈 부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9 월 24 일(목) 회원사 대상 2020 년도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미팅에서는 ESG 실무그룹의 총 14 개 기관이 참석하여 ESG 관련 교육영상과 ESG 동향 및 기업 대응에 대한 발표를 통해 ESG 투자 기업 대응 방안 시사점과 ESG 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석기업들은 자사의 ESG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ESG 현안 및 실무그룹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팅 시작에 앞서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ESG 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UNGC 한국협회는 여성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 반부패 세 개 분야에 중점을 두며 기업들의 ESG 투자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범 사무총장은 ESG 실무그룹을 통해 참여사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를 ESG 주류화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NBC 가뱅크오브아메리카, MSCI 등 ESG 투자 기관 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포함해 제작한 ‘The Rise of ESG Investing’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회가 번역한 영상은 △ESG 관련 최근 동향 △ESG 투자 관련 투자기관 관점 △ESG 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높은 관심 △ESG 투자의 향후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SG 동향 및 기업 대응 발표에서는 UNGC 한국협회 여지원 연구원이 △ESG 와 기업 지속가능성 △글로벌 ESG 동향△국내 ESG 동향 △ESG 관련 제도화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여지원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투자 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외적 ESG 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정도의 비즈니스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 ESG 요소를 비즈니스 전반에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0 년간 UNGC 한국협회는 PRI(책임투자원칙)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ESG 실무그룹 참여사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ESG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참여기업 ESG 대응 현황 세션에는 각 참여기업의 ESG 관련 활동과 ESG 투자 대응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KB 국민은행 - ESG 전략 도입(2018 년),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2020 년), 임직원 대상 ESG 인식 제고 향상 노력 △법무법인 지평 - 로펌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및 ESG 센터 발족 △(주)두산 - 자체적인 ESG 대응 레벨 기준표 정립 및 각 부서 내 ESG 전략 내재화 필요성 언급 △두산중공업 - 활발한 ESG 활동을 통해 긍정적 브랜드 평판 형성 및 중점적으로 기후변화 기업 활동 진행 △SK 가스 - 기업지배구조원, MSCI 등의 ESG 평가 대응 활동 소개 △SKT - 온실 가스 감축 사업 등 환경 관련 ESG 대응 프로그램 진행 △SK 하이닉스 - SASB, TCFD 등 글로벌 ESG 평가 기준에 맞춘 ESG 활동 공시



△포스코 - 각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ESG 평가 대응 및 관련 활동은 기업시민보고서에 공시  
 △포스코 인터내셔널 - SDGs 와 연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해외 투자사 및 소비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ESG 평가 시스템 대응 진행 △CJ 대한통운 - 녹색 물류 구축 및 전기차 이용을 통한 환경경영  
 이행 △CJ 제일제당 - 글로벌 투자사 및 공급사의 ESG 데이터 공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분기에 공시 △하나은행 - ESG 각 이슈별로 대응, 소셜과 환경부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계획 중 △KT - ESG 거버넌스 구축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립 할 계획



이외에도 1 차 미팅에서는 △임직원 대상 ESG 인식 개선의 필요성 △각 부서 내 ESG 전략 내재화의  
 필요성 및 시스템 구축 방안 △산업 특성을 고려한 ESG 평가 기준의 필요성 △명확한 ESG 평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 △ ESG 통합 관리 부서의 필요성 △효과적인 ESG 정보 공시의 방안 △효율적인 ESG  
 평가 대응 방안(부서간 협업 방안, 담당 부서 지정 협의 등) △ESG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ESG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각 부서에 ESG 전략을 내재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 및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일원화된 ESG 평가 기준 대응의  
 어려움과 정확한 평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주)두산 신연빈 차장과 KB 국민은행 장도성 차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과 함께 2020 년도 ESG 실무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UNGC 한국협회 ESG 실무그룹은 11 월 5 일에 2 차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차 미팅에서는 국내외 ESG 평가사 관련 실무자를 초청해 ESG 평가 대응 방안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 여지원 연구원 / 공유진 연구원 (T. 02-749-2149/50)

### 3.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공유 (9/25)

\*참석기관 (가나다 순): 국민연금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SH 공사 등 14개 기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형구 교수,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9월 25일 (금) 오후 2시, 공공부문 회원사 대상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제2차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2차 미팅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인권경영에 있어 비슷한 입장, 정책 및 경영방침을 가진 다른 회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관은 인권경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료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실무그룹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 게스트로서 미팅을 참관한 인권경영 전문가인 고려대 경영대 문형구 명예교수는 인사말씀을 전하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부패 위험이 커졌듯 인권에 대해서도 불평등 심화 및 확진자에 대한 차별, 개인정보 공개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에 인권을 위해 만든 수많은 사회적 규범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인권을 위해 만든 수많은 규범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며 본 미팅이 공공기관들이 인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기업과 인권의 사례 교육영상 시청 △실무그룹 참여기관 우수 사례 공유 △코로나19와 기업 인권 UNDP 체크리스트 결과 공유 △실무그룹 운영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미팅에서는 실무그룹 참여사인 SH공사와 한전KDN에서 각 기관의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협력사 인권경영에 관한 사례에 대해 직접 발표하여 인권 경영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노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SH공사의 원신애 차장은 인권침해의 구제 메커니즘과 관련해 ‘SH인권센터’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SH인권센터는 지난 7월 29일 정식 출범한 인권침해구제기구로, SH공사 내외부의이해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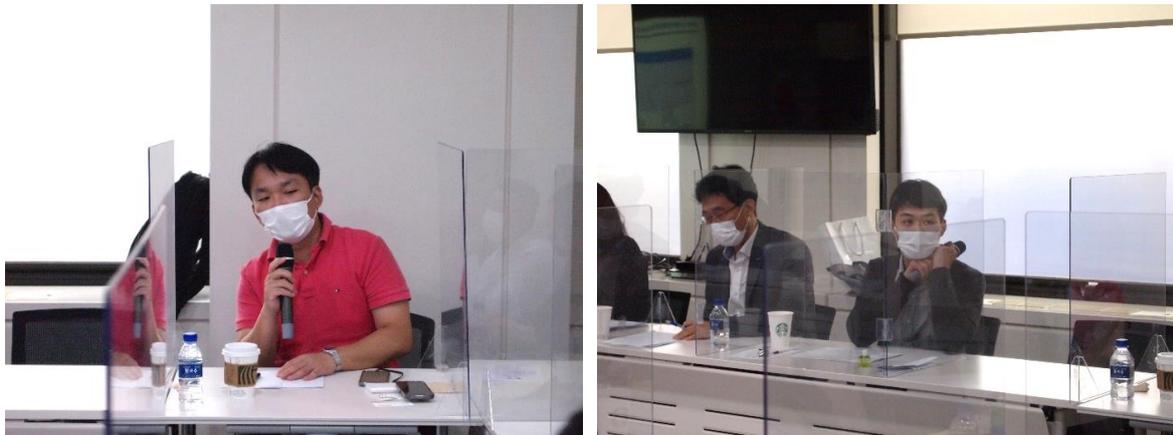
SH공사의 인권센터는 외부 별도 기구 설치를 통하여 인권 침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접수에서부터 결정문 통지까지 한 기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신애 차장은 센터 기획 및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SH공사가 고민했던 과제들과 센터 개소 이후 실질적인 운영에서 발생한 과제를 공유하며 향후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해 인권경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SH공사의 노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구제절차 이행과 관련해 부서 간 권한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한전KDN의 ‘협력사 윤리-인권경영 지원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최성민 대리는 인권경영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배경으로 본 협력사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협력사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은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실효성을 설명하여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전KDN에서 2018년부터 협력사 윤리-인권경영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윤리-인권경영 지원에 대한 협력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전KDN은 협력사 등록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신청을 통해 윤리-인권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워크숍에 참여한 협력사 대표들과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별 윤리인권 현장을 구축했으며, 실무자들의 윤리-인권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협력사 범위 규정 범위에 대한 고민이나, 협력사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순서인 '코로나19 기업과 인권 UNDP 체크리스트 결과 공유' 중에는 담당자들이 2차 미팅 사전에 실시한 체크리스트 결과에 대해 공유하며 인권경영 현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공유된 11개 기관의 체크리스트 실시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에서 코로나 관련 비상대응시스템(상황실, 대책본부 등) 및 매뉴얼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임산부 등 여성에 특정한 코로나19 특별 조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기관에서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편견 및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인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슈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인권경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공공부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3차 미팅은 12월 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3차 미팅에서는 중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내 6개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인권경영 진단지표의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 4. 『TGE 엠베서더 포럼』 개최 안내 (10/1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내 여성 리더십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TGE(Target Gender Equal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위급 조찬 포럼, 『TGE 엠베서더 포럼』을 개최합니다.

각 TGE 참여 기업의 임원인 TGE 엠베서더를 대상으로 하는 본 포럼은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민간부문의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동향 및 계획을 알아보고, 우수한 성평등 정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성평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솔루션과 실질적인 효과 등을 나눌 계획입니다.

특히 본 포럼에서는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이 TGE 참여 기업에게 보내는 'TGE 참여 증서'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참여 기업 간 고위급 네트워킹 및 정부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이자, 각 기업의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모멘텀이 될 본 조찬 간담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개요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7:30 - 9:0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스위트(36F) | 참석: 엠베서더(임원) 1인, 실무자 1인

시간		프로그램
07:30 - 07:35	5'	환영사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07:35 - 07:40	5'	TGE 참여 증서 전달식 - TGE 참여사
07:40 - 07:55	15'	기조연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07:55 - 08:10	15'	발표, 글로벌 성평등 우수기업 사례 - 이준엽, 한국 P&G 부사장
08:10 - 08:20	10'	질의응답
08:20 - 09:00	40'	조찬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現 여성가족부 차관  
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前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이준엽, 한국 P&G 부사장

現 부사장, 영업본부장, 한국  
前 상무, e커머스 사업부장, 한국  
前 전무, e커머스 사업부장, 글로벌 e커머스 교육 사업부장, 일본



문의사항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여지원 연구원, 공유진 연구원(02-749-2149/5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은 TGE 참여사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5.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안내 (10/1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기업 환경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차 미팅에서는 코로나19가 반부패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리스크 및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입니다.

또한 영국왕립표준협회(BSI) 관계자를 초청하여,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 및 ISO/DIS 37301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의 실질적인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그룹 참여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부패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사전 점검해보며 동료학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차 미팅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일시:** 10월 16일(금) 14:00 - 17:00
-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 \*추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연기되거나 온라인 회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5')	인사말
14:05 - 14:35 (30')	ISO37001 및 ISO/DIS 37301 과 기업 반부패
14:35 - 14:50 (15')	코로나 19 와 반부패
14:50 - 15:05 (15')	질의응답
15:05 - 15:15 (10')	휴식
15:15 - 16:45 (90')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부패 리스크 관리 현황 공유
16:45 - 17:00 (15')	향후 미팅 아젠다 논의 및 마무리

▶ 문의: 이수란 과장 / 임재진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본 미팅은 실무그룹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부 소식

### 1. 1,000 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 유엔 75 주년을 맞아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 표명

#### 1,000 명 이상의 CEO,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성명'을 지지하며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비즈니스로 단결할 것을 다짐

100 개국 내 1,000 명 이상의 CEO 가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CEO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유엔과 포용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수백 개에 달하는 각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본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성명에 서명한 CEO 들의 전체 명단을 포함한 본 지지성명을 유엔 75 주년 기념 고위급회담의 일환으로 주최된 민간부문 포럼 개최식에 맞춰 의해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본 성명은 포용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획기적인 지지”라며 “성명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국경, 산업, 세대를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성명이 발표된지 고작 1 달이 흐른 가운데,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 부문과 영역을 가로지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294 명의 CEO 가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며 “유엔과 더 넓게는 전 세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이들의 의지에 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급변과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인 지금, 유엔 75 주년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경, 산업, 세대를 가로지르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정신에 있어, 공공·민간 기관은 자사가 책임성 있고 윤리적이며, 포용성 있고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CEO 지지 성명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기업인으로서 평화, 정의와 제도가 조직의 장기적 생존에 이롭다는 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통의 경험을 통해 유엔의 임무에 동참하고 세계를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함께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합니다.”

또한, CEO 성명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6 (평화, 정의 및 견고한 제도 고취)을 지지합니다. 본 목표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을 통해 60 명의 고위급 경영진들은 환경 및 사회 이슈와 마찬가지로 좋은 지배구조가 좋은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 UNGC 회원사 중에서는 GS칼텍스, NS홈쇼핑, SK가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롯데홈쇼핑, 케이에이치메디칼, 효성첨단소재 등 9개 기업이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자 전체 리스트를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 250 개 이상의 기업, 여성 리더십과 성평등 향상을 위한 행동에 나서다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전 세계 19 개국에서 출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제 75 회 유엔총회에서 주요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타깃젠더이퀄리티에 250 개사 이상이 참여하였다고 발표하며, 기업들의 주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중대한 사명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성평등 진전을 목표로 하는 참여사를 지원하기 위해 카탈리스트와 제휴하여 역량 강화 워크숍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합니다. 워크숍은 기업의 목표 설정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업무 현장에서 성평등 진전에 대한 장애물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직장 내 성평등이 주요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로 떠오른 데 반해,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충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타깃젠더이퀄리티는 기업이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카탈리스트와의 파트너십은 참여사가 변화를 실행에 옮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레인 해리톤(Lorraine Hariton) 카탈리스트 회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협력하여 기업의 조직 내 성평등 향상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 다양한 산업계의 기관들과 60 년가량 함께 일해 왔으며,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카탈리스트의 연구와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타깃젠더이퀄리티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며, 필립스반휴센(PVH Corp.)과 나투라앤코(Natura&Co.) 등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유엔여성기구와 공동 런칭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측정 가능한 결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0%가 채 되지 않는 기업만이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타임라인을 갖춘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타깃젠더이퀄리티는 지난 2 월에 런칭되어 현재 전 세계 19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75 회 유엔총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Uniting Business LIVE 의 TGE 세션 “Target Gender Equality: Leave No Woman Behind”에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조 연설자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기업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문 보기

# SDGs 소식

##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부산경제진흥원



UNGC 가입: 2019. 4. 8

### 기본개요

부산소재 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설립목적과 부산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베스트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은 2000년 11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부산시 공공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가치를 실현하며 부산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일반현황

현재 박기식 원장을 중심으로 1실 2본부 6센터의 조직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은 130명의 인력으로 부산시 전 지역에 2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기능

- 창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기업 해외통상 및 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마케팅, 컨설팅 등)
- 신발, 스마트헬스케어, 지식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산업단지 관리 운영
-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각종 경제현안 대책 수립



###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대책 마련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 19 피해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피해지원센터 6개소를 각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피해 현황과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단기적인 지원과 향후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부 및 예방물품 제공

-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렇게 모은 5,855 천원의 소중한 성금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4 개 지소와 동·서부산권 대표조합 및 협의회 등에 살균소독제 70 통 및 대형분무기 11 개를 비치하였으며, 통근버스에도 손소독제와 1 일 1 회 방역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손소독제 110 개, 고품질마스크 1,600 개, 위생장갑 500 세트를 제공하여 코로나 19 감염 및 확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 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임대료 절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500 억을 투입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 백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컨설팅의 확대와 해당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를 지원하여 많은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1 인당 최대 50 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현장대응 관련 공공일자리 분야에 청년 250 명을 채용시키는 일자리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원사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에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체 대응지침 마련 및 실천

-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 19 전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정부 및 부산시 코로나 19 관련 매뉴얼과 행동수칙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와 정부

및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자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면회의와 보고 및 출장의 원칙적 금지와 불요불급한 외출 외에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였고,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에 있어서도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 부산경제진흥원은 전 직원에 대한 마스크를 배포와 전 사업장에 손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 예방활동에 앞장서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은 업무시스템을 코로나 19 예방과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과의 대면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화상과 온라인을 활용한 방법을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 월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회의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범사례로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현지기업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온라인 심사 및 면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화상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과 화상을 통한 상담회 개최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조직개편을 통한 선제적 대응

- 부산경제진흥원은 보다 능동적인 내부변화의 방법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코로나 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채용 및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조직 內 TF 를 구성하여 코로나 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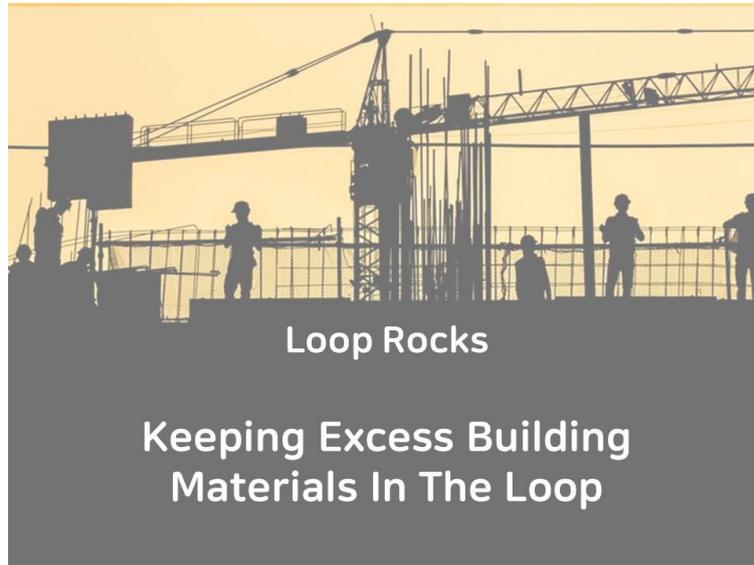
-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피해 접수센터를 통해 수집한 피해상황을 토대로 수출입기업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시비의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촉이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확대 시행하여 코로나 19 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2. [SDGs 솔루션] 순환경제 속 잔여 건설자재 활용



*Loop Rocks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잔여 건설자재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결해주며, 이로써 시간과 돈, 자원을 절약합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의 폐기물은 다른 현장에서의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Loop Rocks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Loop Rocks는 건설 현장 내 사용되지 않은 건설 자재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 및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순환경제 개념에 기반한 Loop Rocks는 인근 건설 현장의 잔여 건설 자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자재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건설업계의 생산과 운송 관련 비용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Loop Rocks는 공인된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주택보유자에 이르기까지 8,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매칭 기능을 통해 건설업계 근로자와 건설계약업자를 연결하여 직거래에 참여하게 하며, 수영장 공사 후 남은 건설 자재용 골재부터 대규모 발굴작업에서 나온 흙까지 모든 건설 자재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30만 톤의 자재가 구매 가능하며 수요는 그 두 배에 달해 건설 자재 전매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oop Rocks는 환경 오염을 막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재가 매매되기 전 환경 샘플링을 요구합니다. Loop Rocks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환경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왜 Loop Rocks에 주목해야 할까요?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은 유럽연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체의 25-30% 가량을 차지합니다. 자재 재활용은 시간, 금전, 자원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합니다. 소비자와 공급자는 Loop Rocks의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잠재적으로 절약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송된 쇠석을 500톤 사용할 경우 약 2만 달러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6,000킬로그램가량 감축할 수 있습니다.

##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Loop Rocks 는 공사 현장에서 남은 건설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현재까지 Loop Rocks 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 200만 톤의 자재를 순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회원 뉴스

## 1. SK하이닉스·GS칼텍스 등 9곳, UNGC `다자주의 지지' 참여



- SK 하이닉스와 GS 칼텍스 등 국내 9 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국제기구 성명에 힘을 보탬
- 24 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유엔 창립 75 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100 개국 이상, 1000 명 이상 CEO가 참여한 다자주의 지지선언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CEO 성명'에 9 개 국내 UNGC 회원사가 참여했다"고 밝힘
- UNGC 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GS 칼텍스, NS 홈쇼핑, SK 가스,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롯데홈쇼핑, 케이에이치메디칼, 효성첨단소재 등 9 개사임
- 이번 성명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올바른 거버넌스 이행,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 정의에 대한 접근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약속이 명시됨

매일경제

## 2. 동아쏘시오홀딩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됐다



- 동아쏘시오홀딩스는 9월 23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증서 전달식을 진행함
- 이번 가입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쏘시오그룹 경영활동에 있어서 UNGC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유엔(UN)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으로써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
-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은 "UN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익숙해지고, UN SDGs의 이행이 가져올 기회와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동아쏘시오그룹의 방식으로 전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 3. GS칼텍스-한국전력, 기업형 전기차 충전 모델 개발



- GS칼텍스와 한국전력이 기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 이에 따라 GS칼텍스 법인고객의 전기차는 앞으로 한전의 전국 8천 600여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음
- GS칼텍스는 주유소에 제공하는 세차, 정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전의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 고객에게도 제공할 예정
- 현재 호환되지 않는 양사 전기차 충전 요금 결제는 상호 가능하도록 해서 각사 고객이 충전 카드를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연합뉴스

#### 4. 미래에셋대우, ESG 투자상품 늘리고...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

미래지향적인 기업정신과 비전의 상징



-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적책임투자(SRI)와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 투자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재생에너지,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투자에 앞장서고 있음
-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ESG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고객들도 손쉽게 ESG 투자를 할 수 있게 함. '미래에셋지속가능 ESG 채권펀드'는 지난 6 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한 국내 최초 채권형 ESG 펀드로, 투자 대상은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내 상장사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관련 평가 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채권과 ESG 목적발행채권임
- 친환경 프로젝트에도 직접 투자하거나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이상기후 현상, 폐기물 증가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함. 또한 칠레의 105 메가와트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선함
- 미래에셋대우가 발행한 해외 공모채는 총 6 억달러 규모로 3년, 5년 두 개의 만기 구조로 발행됨. 이 중 3 년물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권사 최초로 발행된 SRI 채권인데,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건물 투자,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

한국경제

## 5. 남부발전,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뉴딜에 4조원 투자



- 남부발전은 ‘KOSPO 그린뉴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원 투자, 일자리 3만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힘
-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국산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착공에 나설 계획. 또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협업 대용량 태양광사업 추진과 주민참여 사업모델 발굴로 202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설비규모를 3230MW까지 확대할 예정
- 남부발전은 2030년 전체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 특히, 지난 6월 국산 풍력 100기 건설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결실인 태백귀네미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함
- 남부발전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남 해남에 구축된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인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98MW)는 인근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모델로 개발된 대표적 사례며, 삼척발전본부 내 주민참여형 1, 2단계 태양광 사업(4.6MW)은 국내 최초 주민참여 채권형 모델임
-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착실히 준비 중. 특히, 부산 신항 물류단지 태양광은 물류창고 지붕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개발로, ‘세계 최대 규모 그린포트’ 조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키우는 성공적 상생 모델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 6. 제주개발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제주도개발공사가 전국 지방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적극행정과 반부패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안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내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소통상생협력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법규 위반가능성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정기 교육 실시 △공정거래 위반여부 상시 모니터링 △위반행위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음
- 제주도개발공사는 앞으로 고객과 협력사에 대해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나 재발방지를 해 나갈 계획

노컷뉴스

## 7. 두산중,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환골탈태'



- 두산중공업은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린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앞서 두산중공업은 2013년부터 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모델 개발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세계 다섯 번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함
- 두산중공업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발전용 가스터빈의 국산화·상용화를 위해 1 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옴. 2034년까지 국내에서 약 20GW 규모의 가스발전 증설이 전망되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국내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역량을 기반으로 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실적 보유 기업으로 탐라해상풍력, 서남권해상풍력에 풍력발전기를 공급함
- 두산중공업은 창원시와 함께 국내 최초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음.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두산퓨얼셀의 친환경 소형 발전기술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연료전지, 풍력발전, 가스터빈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발전기술 라인업을 구축하게 됨

이데일리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입니다.

## 2. COP/COE 제출회원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지평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현대모비스(주)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sk 이노베이션,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공사

####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협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포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인피니티컨설팅, 이젤, 유엔한국협회,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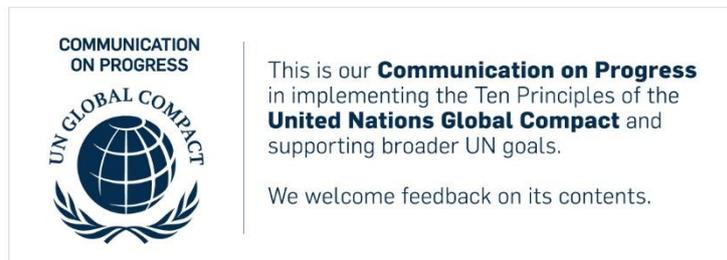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